2013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출제문제

◆ 대학명: 홍익대학교
◆ 모집시기: 수시 1차
◆ 전형명칭: 수시 일반전형
◆ 모집계열: 인문
◆ 출제유형: 일반논술형(자료제시 논술형)
◆ 개요
- 시험시간: 150분
- 출제문항수: 3
- 답안지 양식, 분량: 원고지 양식, 700±100자
- 지정된 필기구 : 본교에서 지급한 청색 볼펜
- 수험생 유의사항

1. 답안에 제목을 쓰지 말 것
2. 모든 답안은 하나의 완결된 글의 형식으로 쓸 것
3. 각 문제마다 7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 감점
5. 수험생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불필요한 표시가 있는 답안은 0점 처리
6. 답안의 작성 수정은 지급된 청색 볼펜 사용,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 금지
7. 세 문제 모두에 답해야 하며, 지원분야별 해당 문제의 배점은 그 외 문제의 2배임

◆ 출제방향(취지) 및 교과서 관련여부 및 근거

세 문제 모두에서 “변화”와 관련된 지문을 제시하고, 지문에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물음과 연관시켜 섬세하고 정확하게 읽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평가의 목표를 두었다.

【문제 1】에서는 신체의 인위적인 변형인 성형, 신체와 정신의 자연적 변화 과정인 노화, 신체의 강제적인 타율적 변형으로서 단발, 그리고 신체의 자기 의지적 소멸로서의 희생을 다룬 지문을 제시하고, 이들 글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주체의 태도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문들은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동화에서부터 소설, 그리고 외국인이 애국계몽기 한국의 현상을 보고 쓴 글, 그림을 해설한 글 등과 같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글들을 선택하였다.

【문제 2】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시장의 변화 양상, 즉 기술의 발달로 나타나게 되는 시장의 다양화 양상을 설명한 지문 (마)와 기술의 발달로 나타나게 되는 승자독식적 시장의 변화 양상을 설명한 지문 (바)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다룬 (사)를 제시하고 그 내용이 (마)와 (바)가운데 어느 것에 대응되며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찾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두 번째 목표를 두었다. 지문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 현상으로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평이한 내용을 다룬 것이다.

【문제 3】에서는 적자와 서자의 차별과 이를 철폐하려는 정조의 개혁 시도의 법과 관련 변화

현상을 다룬 (아)와 흑인(또는 유색인종)과 백인의 차별을 용인한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과 이를 시정한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과 관련 내용을 다룬 (자)를 제시하고, 이들 글에 나타나는 불평등적 차별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며, 그것의 시정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를 읽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제시된 지문 가운데 (아)는 소설로서 읽어내는 데 무리가 없는 쉬운 지문이고, (자)는 약간 난해한 지문이지만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지문이다.

◆ 평가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다수의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고 있는가
2) 개인적 감상이나 직접적 관련 없는 도식화된 예를 활용하는 경우는 감점
3) 제시문을 자신의 말/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
4) 7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처리 기준에 따라 감점

◆ 출제문제: 인문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변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각 제시문에서 변화를 겪는 주체가 변화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나 대응 방식을 논하시오. **(700±100자) [문과대학, 사범대학 및 예술학과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제시문 (가)

네,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시크릿 성형 카페 사건 이후 그 어떤 매체의 인터뷰도 응하지 않은 제가 기자님의 인터뷰에 응한 이유요? 음……, 저번 인터뷰 때에는 몰랐던 것들을 말하고 싶어서일 거예요. 아마. 물론 여전히 여자에게 외모는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들어 제 직업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신중히 고민하고 또 고민한 그녀들이, 자신의 생명을 저에게 맡기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전에는 더 아름다워져야만 성공한 성형수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시죠? 예쁜 색들을 다 섞어놓으면 결국 진흙색이 되는 것처럼, 각각 완벽한 눈, 코, 입을 조합해 새로운 얼굴을 만들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조화라고 생각해요. 성형이란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얼굴에 조화를 찾는 과정이에요.

몸과 얼굴의 조화는 이해하겠는데, 마음은 왜 포함돼 있냐고요? 음,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이마가 좁으면 마음까지 좁은 사람으로, 눈이 자그마하면 시야마저 좁은 사람으로, 튀어나온 볼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으로, 지나친 크기의 가슴으로 인해 가벼워 보이는 사람으로 오해를 사고는 하죠.

그런데 타인에게 받는 그런 오해들 때문에 수술을 한 후, 눈이 커졌으니 더욱 시야를 넓게, 이마가 넓어졌으니 마음 또한 넓게 가지려 노력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는 이 경우를 '능동적인 성형'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마음과 얼굴, 모두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니까요. 반대로 자신의 얼굴과 마음의 조화로움을 찾지 않고 오로지 얼굴만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에 갇혀 타인의 시선에 종속된 그녀들에게 나타나는 '수동적인 성형'은 결국 중독과 부작용이라는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성형이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족한 어느 부분을 메움으로써 조화를 얻고, 그에 따라 능동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얻게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형은 21세기 과학이 여성들에게 선물한 일종의 무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기의 남용이 끔찍한 결과를 부르듯 성형의 남용 또한 같고요. 남용과 중독은 행복과 반비례하죠.

제시문 (나)

렘브란트 자화상 속의 인물들은, 적어도 말년의 자화상들은 으스대지 않고, 이들의 옷차림은 고귀하지도 않다. 눈빛은 도전적이지 않고 그 무엇을 욕구하는 것도 아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생생하면서, 급기야 이런 생생함으로부터도 그의 이미지는 멀어지는 듯하다. 얼굴의 무수한 주름과 성겨가는 머리숱, 죽음이 가까워오면 눈빛마저 공허해진다. 턱은 두세 겹으로 겹쳐지고 눈은 처지며, 뺨은 함몰되고 이는 차츰 내려앉는다. 잇몸 속이, 이뿌리의 살이 이미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마와 눈썹, 눈동자와 코, 코의 잔등, 뺨과 턱의 윤곽은 희미해져간다. 마침내 머리와 어깨의 선마저 허물어져 그림 속 인물은 알 수 없는 형체가 된다. 그림자 같은 이 형체는 곧 하나의 선이나 점으로 사라져갈 것이다. 그것은 무대 앞에서 그 뒤로, 그 배경으로, 저 너머의 거리와 언덕으로 흩어지고 날아갈 것이다. 밤하늘의 별마저 때가 되면 먼지로 삭아가지 않는가.

생애의 막바지 무렵 사물은 렘브란트에게 점차 희미하게 드러났고, 이 희미한 윤곽은 기억의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더욱 바래져갔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인지도 몰랐다. 형태도, 이 형태에 대한 기억도, 이런 기억의 소멸마저 그에겐 상관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는 '그림을 살면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몰두는 그에게 어떤 응전의 방식—삶과 세계의 소멸에 대한 그 나름의 항의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렘브란트는 바스라지기 쉬운 인간 육체와, 이런 육체에도 인간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차원을 미화 없이 묘파해내는 데 성공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나는 다시 그의 자화상을 떠올린다. 노인 렘브란트는 아직 웃고 있다. 구부정한 모습으로 그는 아이처럼 내게 미소 짓는다. 옷깃의 색채는 거칠고, 눈과 코와 이마와 턱과 뺨도, 사물처럼 주변과 어울린다. 거기엔 어떠한 작위도, 어떤 맹세나 의도도 없어 보인다. 그는 하나의 이미지이되 둘러싼 어둠의 일부처럼 보인다. 그래서 색채는 그의 현존 속으로 배어들고, 이 현존은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듯하다. 이제 색채와 인물, 사람과 사물, 형상과 주변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 무경계적 저편으로 노인은, 훅 불면, 사라져버릴 것 같다. 언제라도 등을 돌리며 떠나버릴 것 같다. 지금 넌 뭘 하고 있느냐. 나는 죄다 잊었노라. 주변의 소음도, 색깔의 구분도, 이편의 삶과 저편의 죽음마저.

제시문 (다)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굳게 뿌리내린 보편적인 관습과 미신은 머리카락을 땋고 돌돌 말아서 동곳을 꽂아 상투를 트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머리칼로 된 주춧돌처럼 조선의 사회와 정치, 문화의 중심을 이룬다. 이 풍습은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서, 역사 기록

과 그림, 그리고 시가와 설화들에 따르면, 이 나라가 생겨났던 그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투를 틀지 않은 사람은 어른 행세를 못하고 존댓말도 듣지 못하며 정중한 대접도 못 받는다. 상투를 튼 뒤에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집안의 한 남자로서의 권위와 의무가 생기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데에도 한몫을 하게 된다. 조상들은 그를 식구의 한 사람, 곧 자기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고 또 자기들이 보호하고 축복해야 할 식구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다.

단발령은 이와 같은 오랜 전통을 무시하고 조선의 모든 남자들에게 머리를 깎도록 강요했다. 조선 사람들은 일찍이 성년이 될 때에 겪었던 우아한 의식의 기억들, 명예로운 집안의 전통, 조상님들의 분노와 불쾌감, 철석같이 지켜온 오랜 관습,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머리를 깎는 그 모욕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긍지와 자존심과 위엄은 모두 빼앗겨 발아래 짓밟혔다. 어디에서나 잔뜩 찌푸린 성난 얼굴들이 보였고 집집마다 통곡 소리와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심하게 울부짖었다. 성문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상투를 칼로 잘라냈기 때문에 농부들과 장작 배달꾼들은 물건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 큰 길거리마다 관리들과 군인들이 진을 치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상투를 잘랐다. 비통하게 울부짖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이 일은 이 나라의 바로 한복판에 뜨거운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외세에 대해 품고 있던 증오심을 더욱 거세게 했다. 우리 몇몇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의 처지에 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칼에서 보호하려고 우리 숙소에 머물게 했다. 지방에서는 동학당이 다시 일어섰고 여러 마을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시골로 내려갔던 몇몇 상투 자른 관리들은 성난 백성들에게 쫓겨 왔다. 봉기한 백성들은 그들을 관리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제로 몇몇을 죽이기도 했다. 관아는 부서졌고 군인들은 무력해서 혼란을 진압할 수가 없었다.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다.

제시문 (라)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미닭 한 마리가 병아리 열두 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다 강아지똥을 들여다봤어요. “암만 봐도 먹을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두 찌꺼기뿐이야.” 어미닭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냥 가버렸어요.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어요.

“너는 뭐니?” 강아지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빛나.”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느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래애……. 그렇구나…….” 강아지똥은 민들레가 부러워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똥을 봤어요.

“…….”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네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에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강아지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버렸어요.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자디잘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향긋한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똥의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어요.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는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마)와 (바)를 비교하여 논하고, (마) 또는 (바)를 활용하여 제시문 (사)를 분석하시오. **(700±100자) [경영대학 및 경제학부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제시문 (마)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비용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단순히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양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즉, 틈새 상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경제성이 없었던 콘텐츠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촉발할 수 있다. 수요자들이 틈새 상품들로 옮겨가면 그런 상품들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번성할 것이다.

경제 주체들은 지금까지 잘 팔리는 몇 가지 주력 상품에 집중해왔으나 점차 다양한 종류의 틈새 상품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물리적 진열 공간의 제약과 유통 비용의 장벽에 구애받지 않는 시대가 열림에 따라, 특정한 소수의 고객들을 목표로 하던 상품과 서비스도 주력 상품만큼이나 경제적인 매력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나의 커다란 경제적 자극이 가해졌기 때문에 나타났는데, 이 자극이란 틈새 상품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극적으로 줄어든 것을 말한다.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요인은 생산 도구의 대중화이다. 이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사례는 PC이다. PC는 인쇄기에서부터 영화 및 음악 스튜디오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의 역할을 통합했다. 두 번째 요인은 유통의 대중화를 통해 유통 비용을 줄인 것이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영화감독이나 출판인이 될 수 있게 해 준 것은 PC지만 모든 사람이 유통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바로 인터넷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것으로, 종전에 접할 수 없었던 상품들을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에 소외되었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것이다. 그 예로 구글의 검색 방식, 많은 음원 사이트들의 다양한 음악 추천 기능, 블로그 및 온라인 리뷰 등을 들 수 있다.

제시문 (바)

많은 산업들이 소수가 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또는 이에 가까운 경쟁 구도를 갖고 있다. 대중음악, 프로 스포츠 선수, 기업 전문경영인 시장 등이 좋은 예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시장의 규모 및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능력, 직관, 결정이 국가 차원의 시장, 더 나아가 전 세계 시장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장을 압도할 수 없는 중급 또는 중상급 경쟁자는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고, 시장에서의 압도적 승자인 슈퍼스타는 과거에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

저명한 경제학자 셔윈 로젠은 1981년에 슈퍼스타의 경제학에 관한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어떤 상품을 저비용에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 최고의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가 시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장악하게 된다고 한다. 반면 차상위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가 거두는 수익은, 상품의 질이 최고 수준과 별 차이가 없더라도 최고의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에 비해 극히 적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으로, 평범했던 시장이 슈퍼스타가 지배하는 시장으로 변화하였다. 녹음 기술이 출현하기 전에는 공연장을 청중들로 가득 메울 수 있었던 최고의 가수라도 1년 동안 자신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청중 수는 수천 명에 불과했을 것이다. 녹음 기술이 발달하고 음악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유통될 수 있게 됨으로써 클래식 음악의 요요마나 팝 음악의 레이디 가가 같은 소수의 최고 가수들은 전 세계의 모든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경제학자인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은 음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콘텐츠가 디지털 정보로 변형될 수 있는 모든 산업에서 승자독식 현상이 어떻게 심화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가 소프트웨어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커짐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제시문 (사)

조립형 블록 장난감으로 유명한 레고는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놀도록' 장려한다. 이 웹사이트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제공한다. 레고 고객은 자신이 만든 마인드스톰 로봇의 상세 정보를 사이트에 올릴 수 있다. 실제로 마인드스톰 애호가들은 유별난 열정으로 악명이 높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2005년 레고월드 행사에서 한 참가자는 레고 블록 2만 개와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칩 13개를 사용하여 실제와 똑같이 작동하는 실물 크기의 핀볼 머신*을 출품한 적도 있다. 레고는 이처럼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웹 시스템으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 고객 한 사람이 마인드스톰을 새롭게 응용한 결과를 웹사이트에 올릴 때마다 이 장난감은 더욱 가치 있게 발전한다. 레고의 매즈 니퍼 상무는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색다른 비즈니스 패러다임이라고 말한다.

로봇형 제품인 마인드스톰 사례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자 레고는 전통적인 블록 장난감에도 고객 참여적인 개발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고객이 직접 레고 세트를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사용자는 더 이상 미리 짜 맞춰진 레고 키트의 독재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2005년 시작된 새로운 레고 팩토리 시스템 덕분에 고객은 레고 구성품이 보관된 가상 창고에 접속하여 맞춤형 모델을 설계하여 다른 고객과 공유할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다. 고객은 원하는 만큼의 블록을 사용해 가상의 장난감을

설계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만든 모나리자를 레고 웹사이트에 올리면 당신은 물론이고 다른 레고 팬들 누구라도 조립 설명서와 함께 제공되는 모나리자 블록 세트를 주문할 수 있다. 고객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또한 레고는 젊은 고객 군단을 새로운 레고 모델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분산형 재택 설계팀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레고의 마크 한센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레고 팩토리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사내에 있는 제품 설계자 100여 명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 30만 명 이상의 창의력을 활용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핀볼 머신: 움직이는 실제 구슬을 막대로 튕겨서 점수를 올리는 게임 기계로, 복잡한 장치와 화려한 불빛 및 음향 효과가 특징적이다.

【문제 3】 제시문 (아)와 (자)는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아)와 (자)에 나타난 불평등적 상황을 야기한 법적 근거의 차이와 그 의미를 논하고, 그 상황이 해소되는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시오. **(700±100자) [법과대학 지원자에게는 타 문제의 2배의 배점]**

제시문 (아)

"다음은 회덕 유생 양현기의 상소입니다. <서얼을 허통(許通)하신다는 발표가 있은 뒤로 이곳 회덕현 일원에선 여러 처첩 소생간의,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나이다. 전하께서는 서얼을 차별하는 것이 중국에도 없는 악법이라 하시나 그것은 이치가 그렇지 않사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거공재(同居共財)하는 중국과 달리 혼인을 하면 얼마의 가산(家産)을 떼주어 살림을 내보내는 분가별산(分家別産)의 상속례를 좇고 있사옵니다. 분가를 시킴에 적장자(嫡長子)를 우대한다는 원칙이 뚜렷한 지금도 말이 많아 분란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또 종가에 제향을 받들 가산도 항용 모자라거늘 하물며 이제 적자와 서자의 분별(嫡庶之分)을 없이하시면……>"

"우불(吁咈: 그렇지 않다)!"

정조(正祖)가 다시 이인몽의 말을 가로막으며 대답했다.

그 음성엔 노기가 섞여있어 대번에 좌중을 긴장시켰다. 도승지 민태혁을 비롯하여 좌승지 이서구, 우승지 이익운, 좌부승지 정상우, 우부승지 서유문 등 임금의 앞에 나란히 책상을 놓고 졸다시피 하던 시신들의 등이 일제히 꼿꼿하게 펴졌다. 모두들 하루 종일 계속된 집무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오늘 상소는 거의 다 정조의 교지를 반대하는 것들뿐이니 오죽 일할 맛이 없으랴.

올해 정월, 정조가 재차 천명한 일련의 개혁조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갖고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방안은 서자들의 과거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경국대전』 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를 개정하여 유능한 서얼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날 이후 지금까지 조정의 노론들뿐만 아니라 재야의 사림들로부터 빗발치는 상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1896년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on)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14조는 법 앞에서 백인과 흑인, 두 인종의 절대적 평등을 보장한 것일 뿐, 피부색에 근거한 구분 자체를 폐지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분리되지만 평등한'(separate but equal) 기회를 제공하면 합헌이라는 논리를 들어, 짐 크로우 법률에 의한 흑백 차별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분리되지만 평등한'이라는 원칙은 그 후 6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았다. 남부의 모든 학교와 도서관, 버스에서 흑백 강제 분리는 당당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미국 유색인종 지위향상협의회(NAACP)라는 대표적인 흑인 인권단체가 짐 크로우 법률과 관련된 구체적인 재판들에서 흑인에게 제공되는 시설이 백인에게 제공되는 시설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여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 원칙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NAACP 내의 법률구조 팀을 이끌던 서굿 마셜은 이러한 개별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분리되지만 평등한'이라는 원칙 자체를 깨뜨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직시하여 준비에 착수했다.

올리버 브라운은 린다라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평범하지만 신앙심 깊은 흑인 용접공이었다. 린다는 집에서 7블록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6블록을 걸어가서 스쿨버스를 타고 1.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흑인들만의 먼로 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했다. 1951년 서굿 마셜이 이끄는 NAACP는 캔자스 주의 수도인 토피카에 거주하는 흑인들 중 브라운처럼 집에서 가까운 백인 학교에 입학신청이 거절된 사람들을 모아 토피카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법원은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을 원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법원은 토피카 교육위원회가 흑인 학생들에게 제공한 시설이나 교사의 수준이 동등하므로 실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1952년 가을,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구술변론에서 원고를 대변한 NAACP의 서굿 마셜은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교사, 좋은 교과 과정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분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이며 흑인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흑인 아동들의 교육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구술변론 직후 연방대법원 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자, 연방대법원은 판결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한다.

1953년 12월, 연방대법원장 얼 워렌은 이 사건의 구술변론을 다시 열었다. 6일이나 계속된 구술변론 후, 워렌 대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서굿 마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리'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유색인종 아동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리되지만 평등한'이란 원칙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된다.

◆ 출제문제 해설: 인문

◉ 문제 1(문과, 사범, 예술계열 가중치)

▣ 제시문의 출전 및 해설

• 제시문 (가)
– 출전: 정수현,『페이스 쇼퍼』(2010)
– 해설: 이 제시문은 소설의 주인공인 성형외과 여의사가 한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서술 형식을 취하고 있다. 소설은 이른바 성형 왕국, 튜닝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름답게 변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성형외과 의사들의 거침없는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 제시문 (나)
– 출전: 문광훈,『렘브란트의 웃음: 문광훈의 예술론』(2010)
– 해설: 이 제시문은 렘브란트(1606–1669)의 말년 자화상들 중의 하나인 <제욱시스로서의 자화상>에 깊이 매료된 필자가 이 초상화의 의미와 가치에 관하여 평론한 글이다. 1600년대 당시의 통상적 미 규범과 화단의 심미적 기준으로 볼 때, 젊은 미인이 아니라 추한 노인을 그림의 모델로 취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늙어가는, 즉 추하게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려나간 렘브란트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한 예술가가 도달한 자기성찰의 경지를 엿볼 수 있다.

• 제시문 (다)
– 출전: 릴리어스 호톤 언더우드, 김철 역,『언더우드 부인의 조선견문록』(2008)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1904)
– 해설: 이 제시문은 1888년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15년 동안 살았던 언더우드 부인의 경험을 기록한 책에서 발췌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각에서 단발령이라는 외적 변화에 대한 조선인들의 대응을 기록하고 있다.

• 제시문 (라)
– 출전: 권정생,『강아지똥』(1969)
– 해설: 이 제시문은 권정생의 동화『강아지똥』의 결말 부분이다. 권정생은 '강아지똥과 같이 보잘 것 없는 것도 자신의 온몸을 녹여 한 생명을 꽃피운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비록 어둡고 추운 곳이지만 그곳에도 왕자나 공주 못지 않게 따뜻한 영혼을 간직한 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음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었다.

◉ 문제 2 (경영대학 및 경제학부 가중치)

▣ 제시문의 출전 및 해설

• 제시문 (마)
– 출전: 크리스 앤더슨, 박신현 역,『롱테일 법칙』(2012)
Chris Anderson, *The Long Tail* (2008)
– 해설: 이 제시문은 IT가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적은 제품들도 생산, 유통의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 또한 크게 개선되어 전통적인 소수 베스트셀러 위주의 시장이 훨씬 다양성이 큰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제시문 (바)
– 출전: Erik Brynjolfsson & Andrew McAfee, *Race Against the Machine* (2011)
– 해설: 이 제시문은 IT의 발전으로 기존 시장의 승자 독식 현상이 훨씬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국지적 혹은 제한적으로 시장을 리드하던 제품이 IT 기술로 인해 생산, 유통의 효율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여 더욱 넓은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승자 독식(슈퍼스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제시문 (사)
– 출전: 돈 탭스콧 & 앤써니 윌리엄스, 윤미나 역,『위키노믹스』(2010)
Don Tapscott & Anthony D. Williams, *Wiknomics* (2010)
– 해설: 이 제시문은 레고의 예를 들어 IT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품의 다양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제시된 예는 레고사가 웹사이트와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사의 장난감 세트를 디자인하고 개선시키는 데 사용자 집단의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종전보다 훨씬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 문제 3 (법과대학 가중치)

▣ 제시문의 출전 및 해설

• 제시문 (아)
– 출전: 이인화,『영원한 제국』(1993)
– 해설: 이 제시문은 이인화의 장편소설『영원한 제국』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적자와 서자의 차별과 이를 철폐하려는 정조의 개혁 시도를 묘사하고 있다.

• 제시문 (자)

- 출전: 강한승,『미국 법원을 말하다』(2011)
- 해설: 이 제시문은 강한승의『미국 법원을 말하다』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흑인(또는 유색인종)과 백인의 차별을 용인한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과 이를 시정한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